한우드림 (漢友- *Dream*)

2021 辛丑年 立春즈음에

成均館大學校 漢文教育科

목차

✦ 학과장님 인사말 ---- 1
✦ 제44대 학생회장 인사말 ----2

Part.1] 임용고시 준비 시험

✧ 임용고시 준비 시험 문제 ---- 4
✧ 임용고시 준비 시험 답안 ---- 7
✧ 임용고시 준비 시험 부문 수상자 소감 (홍돈호 학우)----- 10

Part.2] 한시 감상문 대회

✧ 한시 감상문 대회 문제 ---- 11
✧ 우수 번역문 및 감상문 (이상현 학우) ---- 13
✧ 한시 감상문 부문 수상자 소감 (이상현 학우) ---- 16

Part.3] 한문 캘리 대회

✧ 학우들 작품 ---- 18

✦ 제45대 학생회장 맺음말 ---- 26
✦ 책자를 만든 사람들 ---- 27

학과장님 인사말

한문교육과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독 길고도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밝고 따스한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과는 새로운 구성원으로 21 학번 신입생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대면하지는 못하지만 지연을 빌어 마음에서 우러나는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코로나 19 의 위태로운 상황이 진행 중인 관계로 여러 행사가 취소되거나 제한적으로 진행되기에 학생 여러분의 불편과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활동하는 우리 학과 학생회 및 구성원들의 노력 덕분에 '한우 드림'이라는 새롭고 뜻깊은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낯설 수 있는 선후배들 간의 우의와 학문에 대한 열의를 다지기 위해 기획된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각자의 능력과 가능성을 보여준 여러분들에게 힘찬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1 년, 올 해도 우리 학과의 모든 구성원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한문교육과 학과장 김영주

제 44 대 학생회장 인사말

한문교육과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일상에 많은 변화가 생긴 채로 신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사다난하였던 한 해를 이겨내시느라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 구성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덕에 새로 기획한 한우드림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학문에 대한 열의를 보여주신 학생 분들과, 행사 준비를 성심성의껏 도와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올해 신축년에는, 우리 과 학생들의 웃음소리를 다시 혜화동에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 제 44 대 한문교육과 학생회장 김성식

Part.1 임용고시 준비 시험

임용고시 준비 시험 문제

결재	출제	편집	검토	학과장
	진재교 김영주 김득범	金得範		
		김득범	김영주	진재교

弟一回 漢文教育科 科擧試驗

-漢友_*Dream*-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시험	전공A	7문항 20점	90분

-응시자 유의사항-

1. 답안지에 **학번, 성명**을 반드시 기입한다.
2. 온라인 응시자는 시험 종료 후 5분 이내에 답안지를 제출한다.
3. 한교인의 명예를 걸고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4. 문제가 어렵지 않으니 발문을 꼼꼼히 읽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5. 잘 풀고 한우 받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효자, 효녀가 된다.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第一回 漢文教育科 科擧試驗

- 漢友_*Dream* -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1. <보기>를 참고하여, ㉠, ㉡에 공통으로 들어갈 한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2점]

<보기>

→ 愼

篆書 楷書

謹也。从心眞聲。時刃切

* 从 좇을 종
* 時刃切 － ㅅ(시)+ㄴ(인) = 신

→ ㉠

篆書 楷書

→ ㉡

篆書 楷書

㉠ 上所施下所效也。从攴从孝。古孝切。

㉡ 養子使作善也。从𠫓肉聲

→ 得天下英才而㉠㉡之 三樂也

2. ㉠에 공통으로 들어갈 절기를 한자로 쓰고 ㉡의 조리법과 그 쓰임을 설명하시오.

[4점]

(가) (㉠)日稱亞歲 煮㉡赤豆粥 用糯米粉 作鳥卵狀 投其中爲心 和蜜以時食供祀 灑豆汁於門板 以除不祥 按荊楚歲時記 共工氏有不才子以(㉠)死爲疫鬼 畏赤小豆 故(㉠)日作粥以禳之 …(중략)…蓋都下舊俗 端午之扇 官分于吏(㉠)之曆 吏獻于官 是謂夏扇冬曆 波及鄕曲親知墓村農庄 － 『東國歲時記』

3. ㉠의 품사와 뜻을 쓰고, ㉡을 (나)에 의거하여 상세히 국역하시오.

[4점]

(가) 子曰 弟子入則孝 出則㉠弟 ㉡謹而信 汎愛衆 而親仁 行有餘力 則以學文

『論語』 「學而」

(나) 謹者 行之有常也 信者 言之有實也 汎廣也 衆謂衆人 親近也 仁謂仁者 餘力猶言暇日以用也 文謂詩書六藝之文

『論語集註』

※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乍晴還雨雨還晴 ㉠天道猶然況世情
譽我便是還毁我　逃名却自爲求名
花開花謝春何管　雲去雲來山不爭
寄語世人須記認　取歡無處得平生
<㉡乍晴乍雨> (金時習)

(나) 昨過永明寺　暫登浮碧樓
城空月一片　石老雲千秋
麟馬去不返 ㉢天孫何處遊
長嘯倚風磴　山靑江自流
<浮碧樓> (李穡)

4. (가)과 (나)의 시에서 ㉠의 '天道猶然'의 의미와 어울리지 않은 것은?

[2점]

㉮乍晴還雨雨還晴
㉯花開花謝
㉰雲去雲來
㉱山靑江自流
㉲石老雲千秋

5. (가)에서 ㉡'乍晴乍雨'의 의미와 통하는 句는?
[2점]

㉮1구와 2구
㉯3구와 4구
㉰5구와 6구
㉱7구와 8구
㉲1구와 8구

6. (나)의 ㉢天孫은 누구를 지칭하는지 쓰시오.
[2점]

7. 밑줄 친 ㉠, ㉡의 의미에 해당하는 내용을 본문에서 찾아 각각 한자로 쓰시오.

[4점]

異斯夫, 姓金氏, 奈勿王四世孫. 智度路王時, 爲沿邊官. 襲居道㉠權謀, 以馬戲誤加耶國, 取之. 至十三年壬辰, 爲阿瑟羅州軍主, 謀幷于山國. 謂其國人愚悍, 難以威降, 可以計服. 乃多造木偶師子, 分載戰舡, 抵其國海岸, 詐告曰, "㉡汝若不服, 則放此猛獸, 踏殺之." 其人恐懼則降. 眞興王在位十一年, 太寶元年, 百濟拔高句麗道薩城, 高句麗陷百濟金峴城. 主乘兩國兵疲, 命異斯夫出兵擊之. 取二城增築, 留甲士戍之. 時高句麗遣兵, 來攻金峴城, 不克而還. 異斯夫追擊之, 大勝.

一金富軾, 『三國史記』

第一回 漢文教育科 科學試驗

- 漢友_*Dream* -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1. <보기>를 참고하여, ㉠, ㉡에 공통으로 들어갈 한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2점]

<보기>

→ 愼

篆書 楷書

謹也。从心眞聲。時刃切

* 从 좇을 종

* 時刃切 – ㅅ(시)+ㄴ(인) = 신

→ ㉠

篆書 楷書

→ ㉡

篆書 楷書

㉠ 上所施下所效也。从攴从孝。古孝切。

㉡ 養子使作善也。从㐬肉聲

→ 得天下英才而㉠㉡之 三樂也

정답: 教育

2. ㉠에 공통으로 들어갈 절기를 한자로 쓰고 ㉡의 조리법과 그 쓰임을 설명하시오.

[4점]

(가) (㉠)日稱亞歲 煮㉡赤豆粥 用糯米粉 作鳥卵狀 投其中爲心 和蜜以時食供祀 灑豆汁於門板 以除不祥 按荊楚歲時記 共工氏有不才子 以(㉠)死爲疫鬼 畏赤小豆 故(㉠)日作粥以禳之 … (중략) … 盖都下舊俗 端午之扇 官分于吏(㉠)之曆 吏獻于官 是謂夏扇冬曆 波及鄕曲親知墓村農庄 — 『東國歲時記』

정답:

㉠ 冬至

㉡ 붉은 콩 죽(팥죽)을 끓이는데 찹쌀가루를 써서 새알 모양을 만들고 그 속에 던져 심을 만든다. 꿀로 조미하여 제철음식으로써 제사에 올린다. 콩죽을 문판에 뿌려서 상서롭지 못한 것을 제거한다.

3. ㉠의 품사와 뜻을 쓰고, ㉡을 (나)에 의거하여 상세히 국역하시오.

[4점]

(가) 子曰 弟子入則孝 出則㉠弟 ㉡謹而信 汎愛衆 而親仁 行有餘力 則以學文

『論語』 「學而」

(나) 謹者 行之有常也 信者 言之有實也 汎廣也 衆謂衆人 親近也 仁謂仁者 餘力猶言暇日 以用也 文謂詩書六藝之文

『論語集註』

정답:

㉠ 동사, 공경하다

㉡ 행실에 상도가 있으며 말에 실재가 있게 하며 널리 사람들을 사랑하되 인한 자를 가까이 할 것이니 행하고 나서 여가의 시간이 있거든 시서육예의 문헌을 배우는 데에 쓸 것이다.

- 1 -

※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乍晴還雨雨還晴 ㉠天道猶然況世情
譽我便是還毁我 逃名却自爲求名
花開花謝春何管 雲去雲來山不爭
寄語世人須記認 取歡無處得平生
<㉡乍晴乍雨> (金時習)

(나) 昨過永明寺 暫登浮碧樓
城空月一片 石老雲千秋
麟馬去不返 ㉢天孫何處遊
長嘯倚風磴 山靑江自流
<浮碧樓> (李穡)

4. (가)과 (나)의 시에서 ㉠의 '天道猶然'의 의미와 어울리지 않은 것은?

[2점]

㉮乍晴還雨雨還晴
㉯花開花謝
㉰雲去雲來
㉱山靑江自流
㉲石老雲千秋

5. (가)에서 ㉡'乍晴乍雨'의 의미와 통하는 句는?

[2점]

㉮1구와 2구
㉯3구와 4구
㉰5구와 6구
㉱7구와 8구
㉲1구와 8구

6. (나)의 ㉢天孫은 누구를 지칭하는지 쓰시오.

[2점]

정답: 동명왕, 주몽, 고주몽, 동명성왕

7. 밑줄 친 ㉠, ㉡의 의미에 해당하는 내용을 본문에서 찾아 한자를 쓰고 국역하시오.

[4점]

異斯夫, 姓金氏, 奈勿王四世孫. 智度路王時, 爲沿邊官. 襲居道㉠權謀, 以馬戱誤加耶國, 取之. 至十三年壬辰, 爲阿瑟羅州軍主, 謀幷于山國. 謂其國人愚悍, 難以威降, 可以計服. 乃多造木偶師子, 分載戰舡, 抵其國海岸, 詐告曰, "㉡汝若不服, 則放此猛獸, 踏殺之." 其人恐懼則降. 眞興王在位十一年, 太寶元年, 百濟拔高句麗道薩城, 高句麗陷百濟金峴城. 主乘兩國兵疲, 命異斯夫出兵擊之. 取二城增築, 留甲士戍之. 時高句麗遣兵, 來攻金峴城, 不克而還. 異斯夫追擊之, 大勝.

－金富軾, 『三國史記』

정답: ㉠ 馬戱, 木偶師子 ㉡ 其國人, 其人

임용고시 준비 시험 부문 수상자 소감

2020학년도는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새내기 및 재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지며 꽃이 만발했어야 할 교정은 삭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팬데믹 상황은 대략 40여 년간 지속되어 왔던 우리 과만의 고유한 행사인 '답사' 역시 진행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의 일환으로, 이번 '한우드림'이라는 행사가 온-오프 혼합 형식으로써 기획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훗날 이 '한우드림'이라는 행사 역시 우리 과 답사의 한 대안이자, 또 하나의 고유한 행사로써 자리잡기를 기원하며 이번 '한우드림' 임용 부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미약하지만 제 나름대로 여태까지 배웠던 한문 관련 전공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풀었는데 뜻하지 않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되어 기쁘고, 뿌듯했습니다. 이는 순전히 저의 노력이나 능력만이 아닌, 모두 전공 교수님들의 가르침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이 행사에 참여하면서 느낀 바로는 우리 과 자체가 중등교원을 전문적으로 양성해내는 학과인만큼, 먼 훗날 우리들이 교사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기 위해 전공과 관련한 공부를 진작시킬 수 있을 만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앞으로 더욱 활성화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의 교육목표인 法古創新의 정신을 잘 구현해낸 이 '한우드림' 이라는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닌, 우리 과 연간 행사로 자리잡음으로써 선후배 간에 서로가 더욱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장의 형태로 지속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문교육과 19학번 홍돈호 드림.

Part.2 한시 감상문 대회

한시 감상문 대회 문제

결재	출제	편집	학과장
	진재교	김득범	진재교

第一回 漢文教育科 科擧試驗

-漢友_*Dream*-

○漢詩○

제2차 시험	전공B	1문항 20점	기한 내 제출

-응시자 유의사항-

1. 답안지에 **학번, 성명**을 반드시 기입한다.
2. 자전, 전자사전, 기타 서적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번역 가능하다.
3. 인터넷상에 있는 번역문을 그대로 베꼈을 시 0점 처리한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번역은 이미 학과에서 파악완료)
4. 감상은 작품 내•외적으로 자유롭게 작성하되 번역문 외 A4 1장 이내로 분량 제한.
5. 잘 풀고 한우 받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효자, 효녀가 된다.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第一回 漢文教育科 科擧試驗

- 漢友_Dream -

○漢詩○

○ 다음 시를 우리말의 맛을 살려 번역하고, 자유롭게 감상하시오.

朝食耳麥粥。暮食皮麰麧。
麥糜尚難繼。安得豆與粟。
無知小兒莫啼饑。此物雖薄亦充腹。
卽今四野無靑草。來月以後更無食。

우수 번역문 및 감상문 (20학번 이상현 학우)

- 우수 번역문 -

朝食耳麥粥	아침에 먹을 밥은 이맥죽(귀보리죽)이요.
暮食皮䴾覈	저녁에 먹는 밥은 보리싸라기 껍질이라네.
麥糜尚難繼	보리죽은 더욱이 계속 먹기 어려운데.
安得豆與粟	어찌 콩과 조를 얻고자(먹고자) 하겠는가.
無知小兒莫啼饑	무지한 어린아이야, 굶주렸다고 울지 마라.
此物雖薄亦充腹	이 음식(물건) 비록 (양이) 적지만 또한 배는 채울 것이다.
卽今四野無青草	곧 이제 사방의 들에 푸른 풀이 없는데,
來月以後更無食	다음 달 후부터는 (다시는) 먹을 게 없구려.

- 우수 감상문 -

위 시는 통일성과 특수성을 모두 반영한 ‘현실묘사적’ 작품으로 판단된다. 특히, 형식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 각각에서 깊게 인상깊었다. 두 측면에서 시를 감상하도록 할 예정이다.

먼저, 형식적인 측면에서 인상깊었던 부분을 살펴보자. 그 부분은 다름 아닌 '언'수의 변화이다.

1구~4구는 5언을 유지하지만, 5구~8구는 7언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는 일반적인 맥락에서 볼 때 매우 파격적이다. 그러나, 현실주의를 표방했던 ‘이조 후기’라는 시기를 고려한다면 내용적으로는 전형적인 특징이 사용된 작품으로 인식된다.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6언을 제외한 5구, 7구, 8구가 모두 5언으로 재조직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형식을 취한 이유를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한시의 규칙을 충분히 배우지 않아 정확한 해석이 아닐 수 있으나, ‘무지한 어린아이야, 굶주렸다고 울지 마라’를 의미하는 5언과 같은 경우는 ‘愚兒莫啼飢(우아막제기)’으로 재조직이 가능하다. ‘곧 이제 사방의 들에 푸른 풀이 없는데’를 의미하는 7언의 경우에는 ‘今四野無蔌(금사야무속)’으로 재조직이 가능하다. ‘다음 달 후부터는 (다시는) 먹을 게 없구려.’를 의미하는 8언의 경우에는 ‘來月後無食(내월후무식)’으로 재조직이 가능하다. 그러나, 6구의 경우 내용이 2개(음식의 양이 적다는 것, 배를 채우기 어렵다는 것)이기 때문에 5언으로 재조직하는 것이 까다롭다. 아마 이런 까닭에 6구를 5언으로 표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추정된다.

그렇다면 지은이는 크게 두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다. 하나는 6언만 7구로 표현한 후 7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는 5구로 표현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6구로 표현된 7구와 아울러 다른 구

도 함께 7구로 표현하여 특수성과 통일성을 모두 드러내는 것이다. 시의 형식을 통해 알 수 있다시피 지은이는 후자의 방법을 택했다. 1구부터 4구까지는 5언으로, 5구부터 8구는 7언으로 표현함으로써 시의 구별되는 특징을 보여주는 동시에 일관된 느낌을 시사하였다. 이는 높이 평가되기에 마땅하다. 통일성의 측면에서는 1구와 2구의 양상을 들 수 있다. 조식(朝食)은 의미상 모핵(麰麧)으로 연결되고, 모식피(暮食皮)는 의미상 이맥죽(耳麥粥)과 연결된다. 이는 다름 아닌 '대구법'이 사용된 문장이다. 혹여 대구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지라도 통사 구조가 유사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할 듯하다. 다음으로, 내용적인 측면에서 인상적인 부분을 살펴보자. 그 부분은 바로 시적 화자가 '간접적이지만 사실적으로' 자신의 형편을 드러낸다. "굶주렸다고 울지 마라", "푸른 풀이 없는데", "먹을 게 없구려"와 같은 표현을 통해 사실적으로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과 감정에 인지・공감할 수 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는 아이'에게 감정이입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는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이해하기에는 충분하다. 지은이의 뛰어난 실력에 기인한 현상으로 판단된다. 또한, '훈차'된 단어인 이맥죽(耳麥粥)'을 사용하여 현실을 더욱 짙게 표현한 점도 인상적이다.

결론적으로, '차물수박역충복'(此物雖薄亦充腹)구절이 가장 마음에 여운을 남긴다. 이는 '이 음식 비록 적지만 또한 배는 채울 것이다'로 직역된다. 이 문장은 다름 아닌 현재 코로나19를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에게 시적 화자가 건네는 말과 같다. 코로나19로 인해, 그 밖에 다양한 요인으로 요즘 현실이 쉽지 않다. 그러나, 단순히 '어렵다' 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배를 채우리라'와 같은 힘찬 포부와 희망을 갖는 것이 가장 절실히 요구된다. 모쪼록 희망의 끈을 놓치지 말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성균인이, 사람들이 되길 고대한다.

한시 감상문 부문 수상자 소감

- 한시 감상문 부문 수상자 소감 -

안녕하세요. 한문교육과 20학번 이상현입니다.

먼저, 漢友 Dream 행사를 기획하여 전력을 기울여 집행해주신 제44대 한문교육과 학생회 ‘무한’과 한시를 선정해주신 진재교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감상문임에도 불구하고, 수상작으로 선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시행된 漢友 Dream 행사 중 한시 감상문 부문에서 1위로 선정되어 매우 기쁩니다. 대회에 참여할 당시 저는 각종 과제와 시험으로 마음이 조급했었습니다. 그러나, 제시된 한시를 해석하고 저의 경험에 비추어 감상하면서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은 지은이의 상황과 정서를 깊게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구부터 4구까지는 5언을 유지하지만, 5구부터 8구까지는 7언의 모습을 보이는 시의 형태를 조망하면서 변화와 새로운 시도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의 생각을 의미 있게 정리하고, 한자와 한문에 대해 자신감을 얻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학습과 경험의 필요성을 잊지 않는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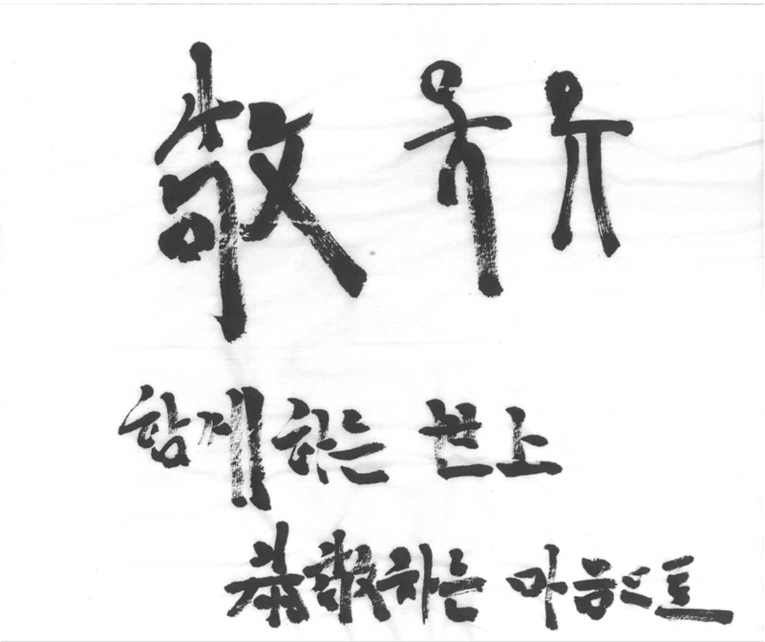
20학번 이상현 드림

Part.3 한문 캘리 대회

학우들 작품

20학번 황수경

소나무 송 자가 주제인 작품입니다. 소나무와 그 위의 새를 통해 굳세면서도, 한편 새를 자신의 가지에 올려주는 포용력을 지닌 소나무를 예찬하고 있습니다. "굳센 소나무처럼..."이라는 문구는 그러한 소나무를 본받고 싶은 작가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19 학번 이재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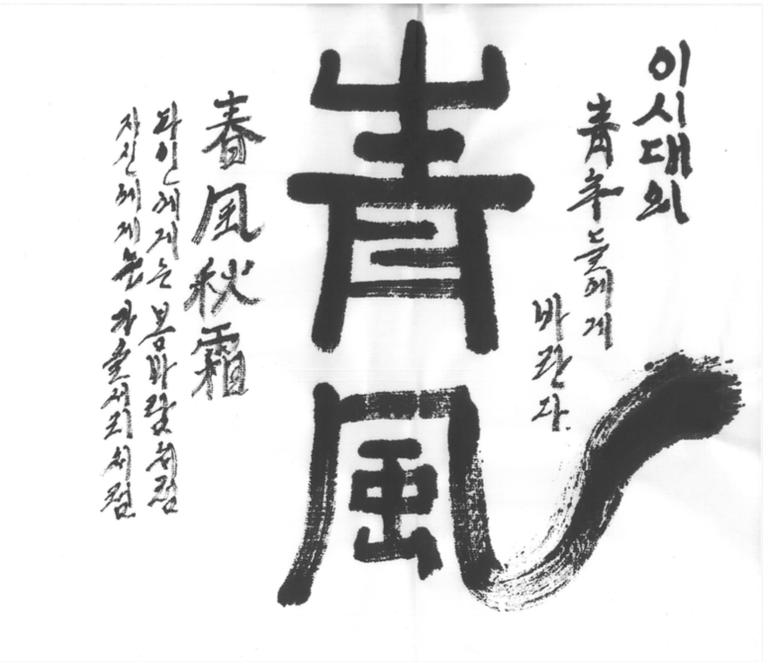
敬(공경할 경)을 사람 2 명으로 의인화하여 사회에서 상호 간에 공경하고 존중함이 옳다는 의미를 지님 이를 작품으로 써냈습니다.

19 학번 홍돈호

우리 학교 이름인 '成均'이라는 글자를 우리말로 직역하면, "이루고, 고르게 하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 본뜻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成은 나 자신의 선한본성을 이룬다는 뜻이며, 均은 자기 자신의 이 선한 본성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사람(타인)들을 모범(최상)의 상태의 경지로 이끌어 올려서 이를 세상에 고르게 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成均'이라는 단어 자체에 우리 학교의 건학이념인 修己治人의 정신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학교의 정신을 잘 보여줄 수 있는 '成均'이라는 학교명과 함께 우리 학교를 대표하는 명륜당과 은행나무를 그림으로써 캘리 작품을 구현해보고자 하였습니다.

19학번 최준태

소설(小雪)은 24절기 중 하나로 입동을 지나서 점점 날이 추워지고 얼음이 얼기 시작하고 눈이 내리는 등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위 속에서도 아직 은은한 햇살이 비춰주며 겨울이지만 따뜻한 느낌을 받게해주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본 작품은 소설이라는 절기의 춥지만 따뜻한 느낌을 캘리그라피라는 글쓰로 표현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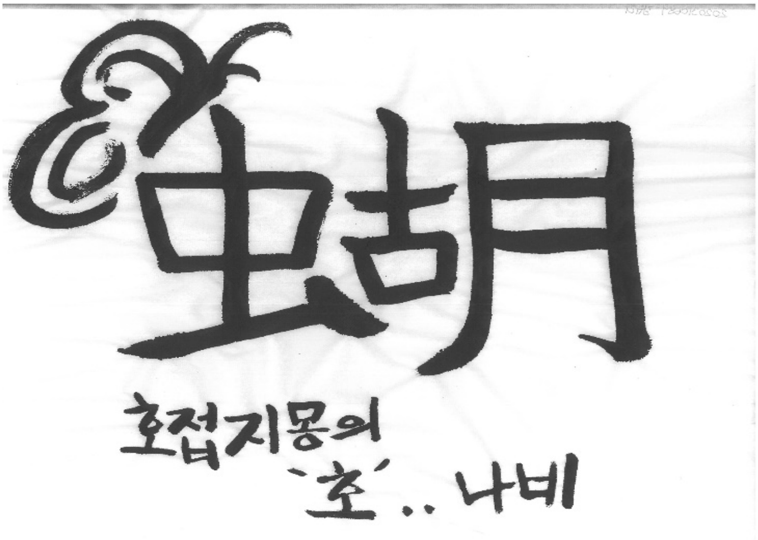


조교 김득범

부푼 마음으로 금잔디 광장을 처음 밟았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또 이렇게 조교로 학과에 돌아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靑風이란 '푸른 바람'과 '이 시대의 靑年들에게 바란다.(청년바람)'를 동시에 의미합니다. 대학 학부 시절이 여러분들에게 그 어느때보다 푸르고 빛나는 시간이 되어줄 것입니다. 春風秋霜은 타인에게는 봄바람처럼 너그럽게 대하고 자신에게는 가을서리처럼 냉철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로나로 사태로 모두들 힘든 한해를 보냈지만 서로 이해하고 의지하며 헤쳐 나갑시다. 우리 한문교육과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길 기원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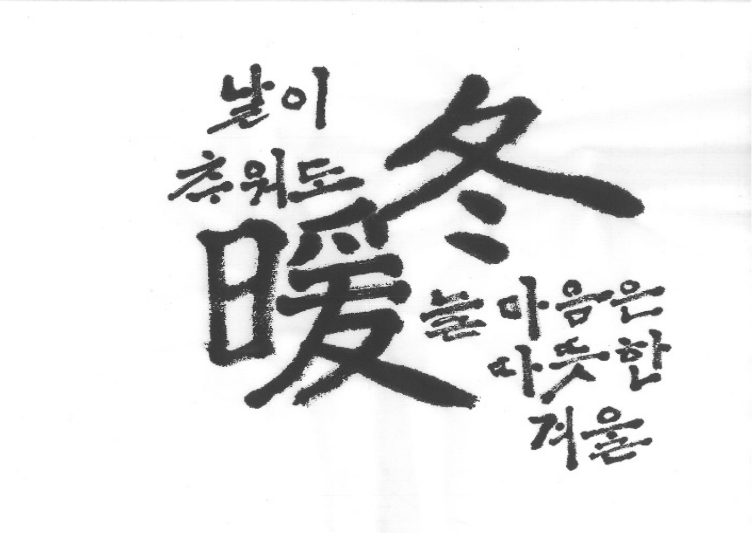
20 학번 박수지

단군신화에 등장하는 단군의 어머니 웅녀를 주제로 곰과 여성의 그림을 글자와 함께 표현하여 완성한 작품입니다. 곰 웅(熊) 옆에는 곰 그림을, 여자 녀(女) 옆에는 여자의 그림을 그려 직설적이면서도 익살스럽게 표현하였습니다. 곰이 사람이 되어 인간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삶의 방식을 바꾸는 적응력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는데, 그 변화를 향한 노력이 지난 한 해 새로운 상황과 환경에 적응하려 애쓴 우리와 닮아 보였습니다.



20 학번 김규리

'호접지몽(胡蝶之夢)'은 장자가 꿈에서 나비가 되어 노니는데, 그 나비가 장자인지 장자가 나비인지 분간하지 못했다는 고사에서 온 말입니다. 사실 이 고사를 생각하고 쓴 것은 아닙니다. 예쁜 한자를 쓰고 싶었는데 갑자기 나비가 생각났고 연이어 고사도 함께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작품에 잘못 쓴 것이지만 '호접지몽' 내에서는 나비 접(蝶) 입니다. 그리고 제가 쓴 것은 나비 호(蝴) 입니다. 아무튼 저는 한자로 나비를 쓰고 싶었고, 호접지몽도 생각나 함께 써 보았습니다. 2021년은 나비처럼 훨훨 날아오르는, 좋은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학번 김성식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2020년 한 해를 힘들게 보냈습니다. 어느덧 일년이 지나 마스크와 함께 맞는 새해를 맞게 되었지만, 이번 겨울만큼은 사람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지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제 45 대 학생회장 맺음말

안녕하세요, 한문교육과 학우 여러분.

어느덧 2020년이 지나 2021년이 찾아왔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학교 생활의 많은 부분이 제한되고 여러 행사들이 취소되면서 많은 학우분들이 아쉬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달래주고자 진행된 '한우드림' 행사는 여러 학우분들의 도움 없이는 잘 진행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행사를 기획해주신 제 44대 학생회 '무한'과 '한우드림' 행사에 참여해주신 한문교육과 학우분들, '한우드림' 책자를 제작에 도움을 주신 교수님들과 조교님 그리고 제 45대 학생회 집행부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2021년, 한문교육과의 모든 구성원분들이 코로나 19로부터 벗어나 희망차고 건강한 해를 보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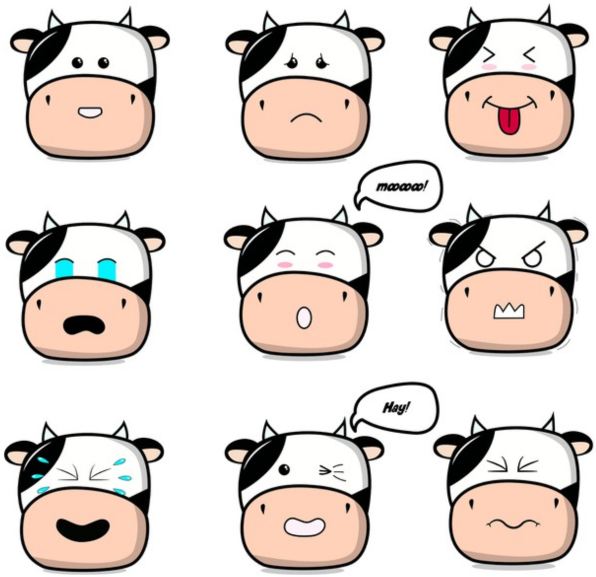
- 제45대 한문교육과 학생회장 강정수

책자를 만든 사람들

출제위원			
김영주 교수님	진재교 교수님	김경천 교수님	김득범 조교님

검토위원_제 44 대 학생회 무한			
학생회장_김성식	부학생회장_이세빈	홍돈호	김경준
서시연	변승원	신민주	김규리
윤정연	신은수	이하민	박수지
황수경	조하경		

편집위원_제 45 대 학생회 도란			
학생회장_강정수	부학생회장_장현유	김규리	문수빈
문정현	박수지	윤정연	조하경
황수경			


mooooo!
Hay!